



SARANG

시론 02

삶의 주거방식, 행복가치에 대하여

종합 03

기고문 _ 지구단위계획, 건축사의 참여가 절실하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특별자치도, '제26회 건축문화상 공모'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전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무료 시민교육 강좌' 운영

광주 지역 뉴스 06-07

2025년 광주건축사회 상반기 감사 실시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 호남권 건축사회, 안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8-09

전라남도, '제3기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전남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관련 시상식 개최
옛 장흥교도소, 복합문화공간 '빠삐웅zip'으로 재탄생

답사기 10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 부산 답사기

설계공모 11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공간 인간
한 편의 시 _ 죽창의 함성
한 장의 사진 _ 제주 조천읍 함덕리 정주향 등대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8.18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삶의 주거방식, 행복가치에 대하여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로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
교수, 출강
- 전국 사찰, 고택, 향교,
관아를 15여 년 간
300여 곳 답사함
- 국립 순천대 평생교육원
에서 한국학, 전통문화
탐방지도사 과목을 강의
- 전남도 한옥자문위원,
순천시축제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전문위원
- 논문 : 건축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2002, 순천대)
- 저서 :
『좋은한옥』
(2012, 전남도청 공저)
『다시읽는 순천인문학』
(2018, 늘보기학)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행복을 잡기 위해서 가고 또 갔더니, 그 행복은 신기루와 같아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은 “추구했던 것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취감”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의 ‘행복학강의’에 의하면 행복의 3대 요소로 ‘자유’, ‘유능’, ‘관계’를 꼽았다. 나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성취’와 ‘성장’이다. 세상을 숙고하며 성장하는 삶과 성취하는 삶을 살다보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는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는 삶일 것이다. 성공해서 행복하다 보다는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라 생각 한다.

따라서 행복을 가꾸는 총체적 행동 중에 여행을 최고로 꼽았다. 이 여행 안에는 자유와 먹는 것, 즐기는 것, 보는 것 등 관계를 만들고 같이 행동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고 했다. 특히 혼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타인의 방해가 없고, 상대방에게 양보해 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다.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에 따라 세상을 여행하면, 자신의 성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키운다. 또 즐겁고 가분하게 마음 깊은한 곳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러한 행복으로 가는 여정(旅程)에 특별한 실체가 있는 것일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소재의 조합인 건축이나 건설처럼 생산하는 생산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행복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다. 직접 가치를 부여하며 생산해 내는 신선한 행복은 향기와도 같다. 그 향기가 퍼져 나가 자신은 물론, 타인들 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아닐까?

최근 TV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면, 산이나 섬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행복은 큰 의미를 갖는다. 대 자연과 공간이 유기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아무나 느껴보지 못하는 기쁨을 느낀다. 자연 속에서는 집의 의미가 크지 않다. 집은 허술해도 주위의 자연이 받쳐준다. 아니 집은 자연의 부속물이 되며 집과 자연은 경쟁하지 않는다. 아마도 노후에는 농어촌생활이나 숲속형 펜션생활 등 마음 속에는 항상 자연과 벗하며 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댈 것이다. 이 욕망을 전원주택형이 조금이라도 채워줄 것이라 믿는다.

주거생활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주택형태가 여럿 있지만, 주거행복의 최소공배수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다. 그것은 의·식·주 그리고 취미가 복합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의·식·주 중 주(住)가 차지하는 행복의 가치는 크다. 따라서 자연과 어울리는

집은 집만이 집이 아니다. 바깥의 산천풍경도 집의 범주이다. 바로 차경(借景)인 셈이다. ‘집의 바깥 풍경을 빌려온다.’라는 뜻이다. 산을 보면, 우리나라 산은 험한 산이 드물고 나무가 많아 부드럽고 친근하다. 강한 이끼림이 있다. 지금은 초가집을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집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한옥하면 기와집을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 기와집이 산 아래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뒷산과의 어울림이 절묘하다. 모나지 않다는 얘기다. 억지로 택지(擇地)하고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

어쩌다 민속마을에 답사를 가서 아담하게 쌓은 돌담과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보고, 행복감에 젖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일까? 특히 자연마을의 가을정취는 더하다. 노랗게 물든 감나무, 은행나무, 담쟁이덩굴, 지붕 위의 호박덩굴이나 박덩굴의 어우러짐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처럼, 무한한 행복감에 젖는다. 꼭 가을만은 아니다. 각 계절마다 자연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설레 이 골목 저 골목 자꾸 걸어보았다. 그 무엇을 찾듯. 그러므로 마음이 심란할 때는 태어난 마을이나 전통마을을 찾아 답사해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 듯 마음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진다.

수도권에서 살면 서민들은 평생 소형주택 한 채 사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한다. 대도시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얼마나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말인가? 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이 크든 작든 못 가진 삶은 행복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항상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집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산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나도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많다. 내 집을 소유해야 행복도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임대아파트와 원룸이 보급되어 조금 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셋방살이의 서러움 때문이었을까? 집이란 소유보다 주거에 중점을 뒀어야하는데 말이다. 그 공간 속에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생장염장(生長斂藏,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것)도 생긴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역할은 다른 전문직보다도 책임감이 크다. 다양한 집의 형태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노정(路程)은 간단하다. 주거생활을 자연과 함께 텃밭이나 화단이 있는 주거형태로 바꿔보자. 세컨하우스라도 좋다. 그렇게 해 본다면, 아파트주거에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환상에 젖어본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기고문

지구단위계획, 건축사의 참여가 절실하다

도시는 인간 삶의 총체이자, 문화와 시간이 중첩된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얼굴을 결정하고, 시민의 일상을 형성하며, 지역의 미래 가치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계획이 과연 그 목적에 걸맞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육광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채담(전북)

규제 중심의 틀, 사라진 현장의 감각
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건축사가 지역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도시설계를 수행하면서, 공간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계획에 녹여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기술사의 표준화된 규정 중심의 작업으로 변질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현장의 맥락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5/10 경사 지붕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거지로서 전통경관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현재의 도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공간 활용의 제약, 디자인의 획일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가 현실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계획
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신기술의 확산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1지구 지구단위 지침의 경우, 주거지역 내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6:4 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1994년 설정된 상세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도로변 상가 뒤 주거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물도 많고 2,3층 주택의 경우 일부 상업기능을 하고 있어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수요와 주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도시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체된 계획은 도시의 활력 저하, 건축 다양성의 실종,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축사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
건축사는 단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시의 맥락을 읽고, 사람의 삶을 공간으로 풀어내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가능성과 감수성을 동시에 지닌 전문가다. 지구단위계획이 단지 법적 규정이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도시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려면 건축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축사는 ‘경사지붕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유효한지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다. 이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복원되며, 시민의 삶은 실제 공간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계획이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을 살아 있는 구조로 만들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면, 건축사의 시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계획’이 도시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성과 시민의 창의적 삶을 담아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건축사가 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도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초·중급 : 70시간 - 고·특급 : 10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중·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초급건설기술인	35시간
	중·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품질관리	초·중·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메이플게스트하우스 1호

이성진 건축사 / (유)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정읍시 수성6로 49, 2층 / Tel. 063-533-4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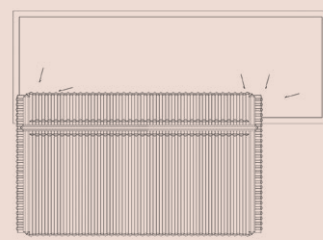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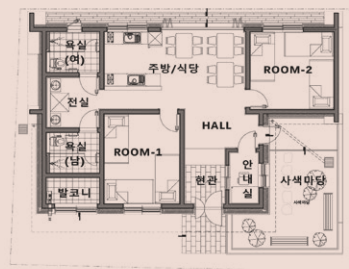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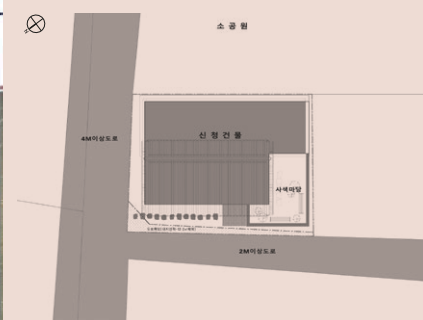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청수1길 52-1 / 대지면적 : 196.00㎡ / 건축면적 : 105.33㎡ / 연면적 : 105.33㎡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도시형 게스트하우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청고벽돌, 와편기와, 고밀도목재패널

“ 시가지 중심 주택지에 위치한 본 대지는 주변의 노후된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본 건물 또한 오래된 세월을 목조기둥이 버겁게 견디고 있었으니 인연이 아니면 못났을 것이다. 설계를 시작할 시에는 오래된 목조주택의 구조체를 보존하여 리모델링으로 설계를 납품하였으나 부분철거 중에 구조체를 보존할 수 없어 모두 철거하고 신축하였다.

메스는 기존건물의 골격을 따르지만 부지 옆 소공원으로의 연계를 위한 열린공간 및 도심 속 메스 안에서 위요 공간을 만드는 고뇌가 녹아있다. 주택이지만 게스트하우스... 작지만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이어야 했다. 공동주방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소공원의 도심 속 자연을 끌어들이며, 낮은 벽체를 이용하여 여럿이 모일 때에는 공동공간의 시선이 열린다. 뒷마당은 도심 속에서 온전히 하늘만 보이는 위요공간으로 멍때리기 좋은 사색마당이다.

오래된 시가지... 과거와 현재가 곳곳에 보이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을까? 고유미를 가진 곡선의 기와지붕 및 와편단장 등은 그 옛날을 상상하며, 고밀도목재패널 등을 이용한 수직과 수평은 지금의 삶을 투영하는 현재의 파사드이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6회 건축문화상 공모' 안내

도내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해...



(사진 = 제25회 전북 건축문화상 비주거 부문 금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의 대표 건축 행사로, 도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으로 평가받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리모델링(대수선, 신고·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공간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 부문은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건축계획 또는 기술계획 작품을 공모하며, 창의성과 실험성이 중점 평가된다. 젊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역 건축문화에 더하는 기회로, 학생 부문 상금도 지난해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작품 접수는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1월 5일 발표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문화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 외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건축문화제는 시상식 외에도 수상작 전시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올해 주제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며, 건축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로,

전북의 미래를 건축을 통해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쇼츠 영상 공모전’도 함께 열리며, 짧고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불업 특별부스’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를 포함한 도내 5개 건축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마련된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건축이 우리 삶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도내 공동주택 건축 시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지침이 시행된 이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하는 아파트이며,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 공동도급비율 10% 이상은 용적률 5.1%, △전문건설업 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 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 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 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 장비 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는 각 항목의 최대치로 6개 항목 합산 20%의 용적률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을 위해 시군 조례상 용적률 250%를 212.5%로 낮춰 기준 용적률을 신설했다. 지침의 최대인 20%의 용적률 우대를 받으면 250% 허용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도는 부지 일부의 기부채납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허용용적률과 달리 인센티브 수치가 6%를 넘을 경우 적용된다.

전북도가 이 지침을 만든 건 2024년 기준으로 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 중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에 불과해 공동 주택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 건설 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시군과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의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무료 시민교육 강좌’ 운영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마다 진행...

전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시민교육 강좌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된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오는 9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합 경영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및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먼저 일반시민과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과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 기초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입문과정이 시작된다.

이후에는 조합 임원, 감사 등 조합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합 회계 및 예산, 정

보공개 실무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전문과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아카데미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13회에 걸쳐 전주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 ‘건설국 청렴거버넌스 간담회’ 개최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청렴문화 정착방안 논의...



(사진 = 익산군청 제공)

전북 익산시는 내달 5일 전문건설업 익산시협의회(회장 장연갑), 익산지역건축사회(회장 안영묵)와 함께 ‘익산시 건설국 청렴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체결한 건설국 청렴거버넌스의 청렴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건설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익산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인허가 및 계약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문화 정착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의 부정청탁 근절 △건설공사 수주·시공 단계의 불법행위 방지 △부실공사 예방 등 ‘불법·부실·청탁 3무(無) 실천’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등 상생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호우 등 건설현장의 안전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재차 확인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과 부실 없는 투명한 건설문화를 만들고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지원팀’ 신설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조례 관리 및 위원회 운영 등 TF팀 구성...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지원팀을 신설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리 및 위원회 운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팀 구성 △하도급 발주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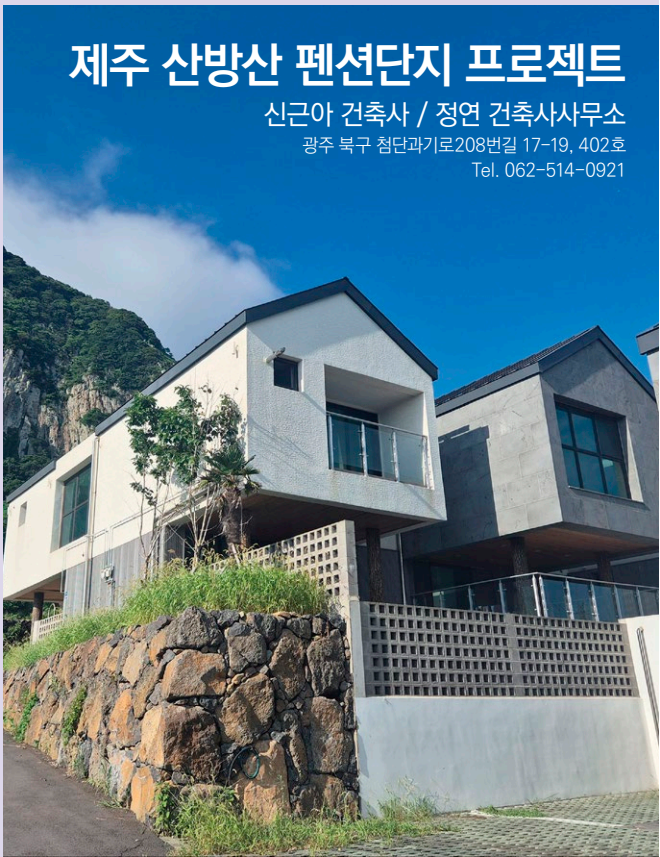
또한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업체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9명 (2025. 8. 4. 기준)
• 입회	- 강명구 건축사 / (주)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서부로 16, 설계빌딩 2층
• 변경(소재지)	- 성두호 건축사 / 우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덕성덕길 33, 1층 - 송주창 건축사 / 하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톨봇2길 6, 204호 - 신영선 건축사 / 오아세(OASE)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로 128-3 - 이명엽 건축사 / 이루다건축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1225호 - 김용운 건축사 / 금강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41, 403호 - 권혁성 건축사 / 스퀘어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501호
• 변경(사무소명)	- 조영철 건축사 / (유)모양 건축사사무소 → (유)건축사사무소 가원앤모양
• 결혼	- 김현수 건축사 / 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8월 2일(토)
• 부고	- 오향근 건축사 / 우림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7월 13일(일)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21 / 대지면적 : 5,249.00㎡ / 건축면적 : 1,508.79㎡ / 연면적 : 3,424.27㎡
건폐율 : 28.74% / 용적률 : 38.0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숙박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제주 산방산 펜션단지 프로젝트

신근아 건축사 / 정연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19, 402호
Tel. 062-514-0921



광주건축사신허 “사무소 운영을 위한 세무교육” 개최

(1) 교육개요

- 목적 : 세무교육을 통한 광주건축사회원 및 사무소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함
- 일시 : 2025. 8. 26.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광주건축사회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80인(광주건축사회원) 및 사무소 직원
- 주관 : 광주건축사신허
- 수강료 : 무료(자기개발 1시간 인정)

(2) 강의내용

- 사무소 운영을 위한 세법·회계 강의
- ☞ 강연 : 권진홍 세무사(권 세무회계 대표)

(3) 세부일정

일자	시간	소요시간	행사내용	비고
8/26 (화)	14:00 ~ 14:50	50분	제1교시 : 세무의 기초적인 내용	
	14:50 ~ 15:00	10분	휴식 및 티타임	
	14:50 ~ 15:00	40분	제2교시 : 개인과 법인 사무소 비교	
	15:40 ~ 16:00	20분	질의응답	

2025년 광주건축사회 상반기 감사 실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했던 사업과 예산집행 지도·점검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각종 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제규정 이행 여부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광주건축사실험을 비롯해 건축사회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했던 사업과 예산집행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오는 8월 30일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오는 8월 30일(토),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22회 광주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무등산이 건물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축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건축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대상은 광주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8월 22일(목)까지 사전 접수를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홍보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gjkira@empas.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참가자가 각자 준비해온 그림 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배부되는 도화지에 자유롭게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 부문 최고상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감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시상이 마련돼 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아이들이 건축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건축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 호남권 건축사회, 안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지역 협력 기반 건설안전 체계 강화 및 사고 예방 논의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광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2025년 호남지역 건설안전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7명과 대한건축사협회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4개 시·도 건축사회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해, 지역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양방향 소통 안전케어 시스템 ‘건설안전주치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건축사들이 건축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복점검으로 인한 시공 지연, 법령과 지침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 비상주감리 현장의 점검 참여 어려움 등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건축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건설안전 정책을 통해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앞으로도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학교·전남대학교, ‘2025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신축 설계를 주제로...



(사진 = 광주대 제공)

양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6월 3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2025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연합 최종 워크숍을 열고 설계 성과물을 공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신축 설계를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시선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지난 5월 26일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6월 16일 여수 해양원 답사 및 중간 발표를 거치며, 여성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을 진행했다.

설계안에는 건축법규뿐만 아니라 무장애(Barrier-Free) 설계 기준이 적극 반영되었으며, 최종 워크숍에서는 장애인 단체 및 건축사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조언을 전했다. 광주대학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다각적 시각을, 전남대 광주캠퍼스는 조형성과 공간미를, 여수캠퍼스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설계안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프로그램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와 (사)장애없는세상만들기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사)실로암사람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축사무소 맥스유·미가온·마중물·가원·더반·바오·유민·지밀 등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광주광역시청, ‘2025년 건축안전역량교육’ 실시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난사고 예방 목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3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 및 자치구 공무원, 관내 건축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건축안전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공사장과 해체공사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교시는 국토안전관리원 박현수 점검관이 진행을 맡아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실무 전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 및 품질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진 2교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성재 과장이 강사로 나서 △해체계획서 항목별 작성 및 검토 방법 △해체현장의 안전관리 및 부실 사례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정승철 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축물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주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1명 (2025. 8. 4. 기준)

• 입회

- 차예진 건축사 / 프리핸드 건축사사무소 /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13-8, 2층 2144호

• 부고

- 오방온 건축사 / 한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7월 31일(목)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법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따스한 질감과 현대적 미학의 조우

조원석 건축사 / 제이디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상삼2길 9-2
Tel. 061-927-4008



이 주택의 파사드를 가장 먼저 정의하는 것은 단연 ‘벽돌’이다. 붉은빛과 갈색빛이 오묘하게 섞인 고벽돌은 시간의 흔적을 담은 듯한 자연스러운 멋을 풍긴다. 이는 정형화된 현대 건축물들 사이에서 집만의 개성과 따스함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지붕과 창호 프레임은 날렵하고 정제된 라인의 검은색 징크와 금속 자재로 마감되었다. 거친 벽돌의 질감과 매끈하고 차가운 금속의 물성은 시각적인 대비를 이루면서도, 서로의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안정적인 균형감을 만들어낸다. 이는 마치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집의 전반적인 디자인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수평적 라인이 강조된 모던한 디자인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집의 현대적인 미학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1126 / 대지면적 : 476㎡ / 건축면적 : 109.4㎡ / 연면적 : 107.3㎡
건폐율 : 22.98% / 용적율 : 22.54%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고벽돌, 징크패널, 시스템 창호, 현무암 판석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철근 대비 인장강도 2배
ESG경영솔루션 (저탄소 제품)
건물유지보수 비용 절감
철근콘크리트의 취약점 해소
내부식성, 비자성, 내화학성,
부도체 (열차단성)

건축사

조달청 혁신/우수제품 지정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기술 녹색자재 인증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LCC)절감

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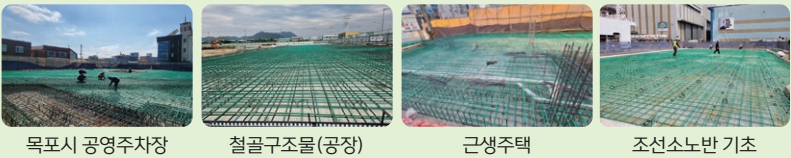
중대재해 ZERO (낙하, 감전)
철근 대비 1/2 중량 (경량성)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철근대비 시공 생산성 176%
물류비 절감
길이 별 납품 가능 (3m~15m)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근골격 질환예방 (경량화)
작업 피로도 감소 (열차단성)
감전 사고 예방 (비전도성)
고용효율 증대 (여성, 노년)

설계 (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 (농어촌공사), 조선소 (항만) 특화자재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라남도, ‘제3기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성, 설계의 완성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예정



(사진 =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제3기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 위촉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방안을 지난달 9일 남악주민 복합센터 회의실에서 심의·의결했다.

제3기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의

다양성을 반영해 총 24명(위촉직 22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최일 전남도 총괄건축가가 선임됐다. 위원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위원 추천을 거쳐 총 7명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새롭게 구성된 소위원회는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성, 지역성, 설계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며, 전남도 공공건축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서면으로 진행해오던 설계비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심의도 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심의의 전문성과 설계 품질 향상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

최일 전남도 건축정책위원장은 “건축정책위원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책 자문과 심의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지역 건축문화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관련 시상식 개최

6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7,492㎡ 규모로 조성



(사진 =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에는 최종 당선자인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대표를 비롯해 입상한 5개

업체의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설계공모에는 총 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 열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공동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상작 전시를 시작했다. 전시에는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영상과 공모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이주경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여수시 본청사 별관은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고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소통과 공감이가 이뤄지는 여수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옛 장흥교도소, 복합문화공간 ‘빠삐용zip’으로 재탄생

4년에 걸친 리모델링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사진 = 장흥군청 제공)

전남 장흥군의 옛 장흥교도소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 ‘빠삐용zip’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장흥군은 지난 25일, ‘빠삐용zip’의 정식 개관식을 개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본격 개방했다.

‘빠삐용zip’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papillon과 다양한 가능성을 압축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zip을 결합해 명명된 이름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약 4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통해 과거 수형시설이 현대적 감각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장흥군은 감시탑과 수감동 등 교도소의 주요 건축적 요소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면서, 그 안에 교정 역사 전시, 예술 체험, 문화 프로그램 등을 융합시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을 완성했다.

내부에는 교정역사전시관, 장흥교도소 아카이브관, 접견체험장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으며, 실제 수감동 내부를 원형 그대로 살려 관람객들이 교도소의 분위기와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머그샷 촬영, 수감복 체험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된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역대 회장 정담회 개최

협회 주요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고견 청취...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은 지난 7월 23일 장흥애에서 역대회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라남도건축사회 역대 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협회 주요 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더불어 협회 발전방안에 대한 고

견 청취가 이뤄졌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조언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신설

공공기반 시설 공사, 공공건축물 시설 공사 및 스포츠시설 확충사업 박차...

전남 영암군이 지역 맞춤형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현장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공영개발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사람 중심, 참여 중심, 미래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광장을 포함한 복합 공공공간 조성과 상가타운 개발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군민 삶을 바꾸는 공간’ 조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암형 공공건축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공간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이영범(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도시정책 총괄 건축가로 위촉되었고, 이어 5월에는 김수현 건축사(라스 종합건축사사무소), 권현아(목포대 교수), 이충미 건축사(진짜노리 건축사사무소) 등 민간 전문가들이 기획 단계부터 조언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0명 (2025. 8. 4. 기준)

• 전입

- 정하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FoOC / 전남 순천시 중앙2길 11-17, 3층
- 이주엽 건축사 / 지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 193-2, 2층

• 변경(소재지)

- 하기성 건축사 / 아키탱 건축사사무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288-43
- 정집문 건축사 / 더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소호로 514, 2층

BS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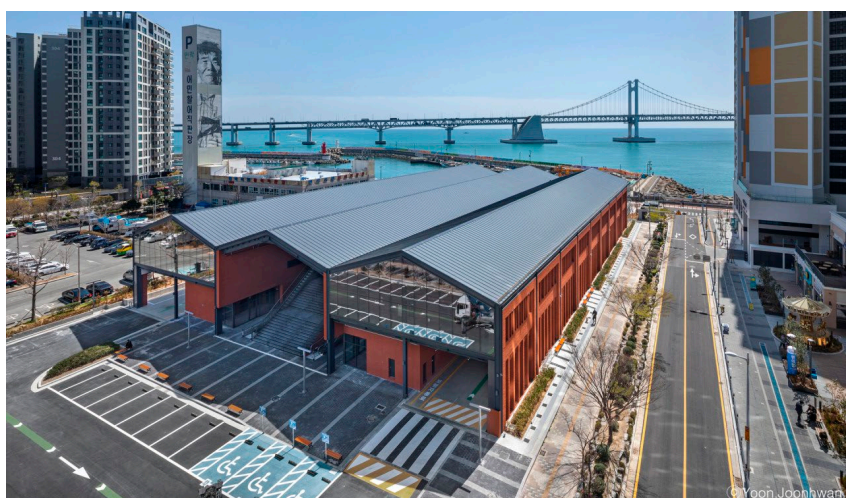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 부산 답사기

김대관 건축사 / 케이 건축사사무소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네 번째 답사지는 부산의 밀락더마켓과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이었다.

밀락더마켓 (2022년 대한민국 공간문화상 최우수상)



민락항 부둣가에서 본 전경

민락항과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사이로 낮게 자리 잡은 밀락더마켓이 눈에 들어온다. 외벽은 붉은 벽돌과 커튼월로 마감되었으며, 지붕은 3개의 박공지붕 형태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다. 1층 외부에 위치한 계단은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고, 외부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가의 산책로 동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2층 공간은 크고 작은 상점들과 문화 공간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중앙의 스탠드형 계단이었다. 이곳에서는 푸른 바다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방문 당시, 이 계단에는 건물 곳곳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모여들어 잠시 더위를 식히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풍경은 이곳이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지역의 일상과 풍경을 담은 특별한 장소라는 인상을 남겼다.



중간계단(스탠드형)에서 본 바다와 광안대교



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 중

필자는 이곳을 보는 내내 궁금했다. 보통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옆의 고층 아파트처럼 수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오후가 될수록 인파는 몰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북적거리는 활기찬 공간이 되어 있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광경을 보며, 당장의 수익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시도한 것과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이런 공공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놀랐다.

광주에서도 도시재생과 문화공간 조성을 여러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다. 밀락더마켓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느꼈다.

부산콘서트홀 (2025년 6월 20일 개관)



부산콘서트홀 전경

부산시민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공원에서의 접근성이 좋았고, 외관보다는 내부 공연장이 관심을 끌었다. 메인 공연장은 빈야드형 객석 구조로 설계되어,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계단식으로 둘러싸듯 배치되어 있다. 이 구조는 시각적 집중도뿐만 아니라 음향 전달에서도 탁월함을 보였다.

벽면은 둥근 형태의 흰색 벽돌과 오각형 회색 벽돌을 쌓아올렸고, 상부에는 음향을 고르게 반사시키는 마살 반사체가 설치되어 있어, 공연장의 음향 품질을 신경 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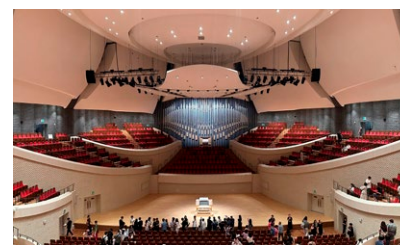
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파이프오르간이었다. 약 4,000개의 파이프와 64개의 스탭, 4단 건반으로 구성된 오르간은 이 공연장을 특별하게 해주고 있었다.

이날 연주된 파이프오르간 음악은 생소하면서도 인상 깊었다. 연주자가 건반을 누르고 페달을 밟는 소리까지도 섬세하게 전달되었으며, 눈을 감고 감상하면 마치 커다란 소라껍데기 안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연주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웅장해지는 오르간의 울림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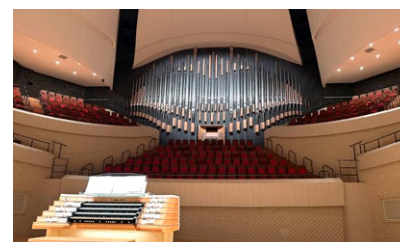
광주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같은 훌륭한 공연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산콘서트홀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몰입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예향의 도시 광주'에도 이런 음악 전용 공연장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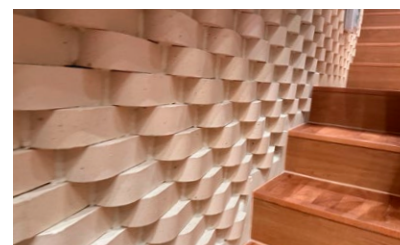
두 건축물 모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이 단순히 기능과 구조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머물고, 이야기가 흐르고, 기억이 쌓일 때 비로소 혼이 담겨 있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빈야드식 객석과 마살 반사체(측상부벽)



오르간은 4,406개 파이프와 62개 스탭, 4단 건반



둥근 흰색 벽돌 마감



오각형 회색 벽돌 마감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이청준 문학관 건립을 통해 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미백 이청준 작가의 문학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여 문학 업적을 알리고 작가의 유작·유품 등이 소실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시·교육·체험기능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심사위원 : 강철욱(건축사사무소예코), 박명재(명제건축사사무소), 장동원(동원건축사사무소), 김한열(주한열종합건축사사무소), 박홍근(주포유건축사사무소), 조창근(조선대학교), 이기욱(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74번지, 산 261번지
- 연 면 적 : 850.00㎡(±5% 범위)
-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규 모 : 지상 2층
- 부지면적 : 10,000㎡
- 추정공사비 : 5,201,950,000원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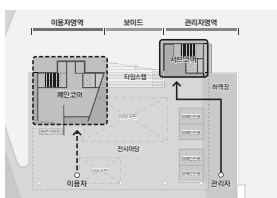
김진우 건축사 / 바오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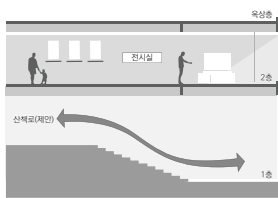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차분리 동선계획



■ 시설특성을 고려한 코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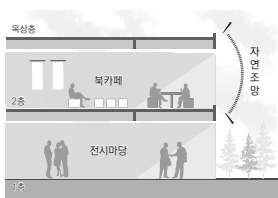
자연환경과 이어지는 연계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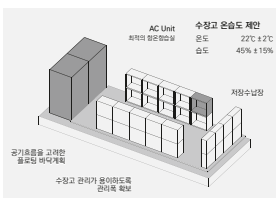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조닝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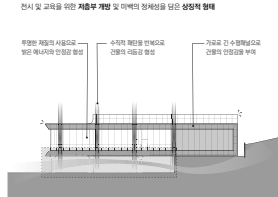
조망권 확보를 위한 실내공간 배치 계획



■ 향훈 향습을 고려한 수장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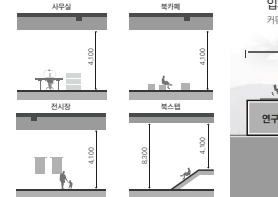
입면디자인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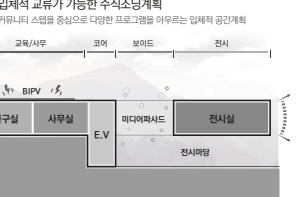
| 공간별 내부 색채/재료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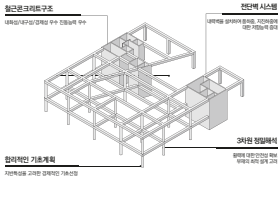
| 각 실의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층고 및 조닝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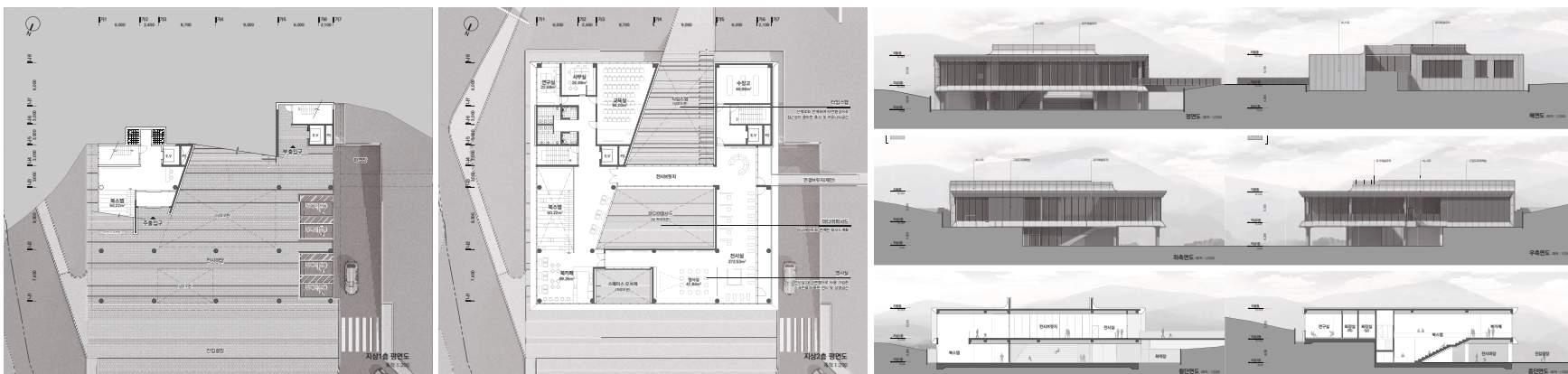
입체적 교류가 가능한 수직조닝계획



■ 구조계획



친환경 시스템 계획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공간 인간

유현준 / 을유문화사 / 2025. 03. 20.

“역사는 계단처럼 진화한다. 그 계단을 오르게 한 것은 새로운 공간이다.”

건축가 유현준은 <공간 인간>에서 이 한 문장을 중심축으로 삼아, 인류가 만들어 온 수많은 공간과 그 공간이 인간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풀어낸다. 그의 기존 책들이 건축의 기능적 구조나 도시 공간 속 일상의 풍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은 훨씬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인간과 공간이 어떻게 공진화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책은 총 17개의 장, 즉 17층짜리 건물처럼 구성되어 있다. 1층은 모닥불이고, 마지막 17층은 스마트 시티다. 이 계단형 서술 구조는 곧 인류 문명의 진화 단계를 상징하며, 각 장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공간과 그 공간이 인간 사회에 끼친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1층의 모닥불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 공간을 상징한다. 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며, 최초의 ‘사회적 거리’가 생겨났다. 이후 동굴 벽화, 괴베클리 테페, 지구라트, 피라미드와 같은 공간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신을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가며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그리스 반원형 극장은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고, 로마의 아퀴덕트는 거대한 제국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혁신이 된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현대에 가까운 공간들이다. 수정궁은 산업화 시대의 대중 소비 문화를 상징하며, 계급과 역할의 재편을 이끌었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냉장고, 전화기 등 기계들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는 수직과 수평의 경계를 확장했고, 인터넷 공간은 인간이 만든 ‘제2의 우주’처럼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디지털로 재편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스마트 시티’는 앞으로의 도시가 인간, 자연,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공간이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었다. 작은 방, 넓은 광장, 높은 천장, 복잡한 골목길 등 모든 이 구조들은 단지 디자인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무는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 상호작용, 심리적 거리감까지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패턴, 나아가 공동체의 규범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단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며, 다음 시대를 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간 인간>은 단지 건축이나 도시 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공간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양서다. 특히 공간과 사람, 도시와 시스템의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 책은 분명히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죽창의 함성

황망한 널따란 들녘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한 자주의 고독한 죽창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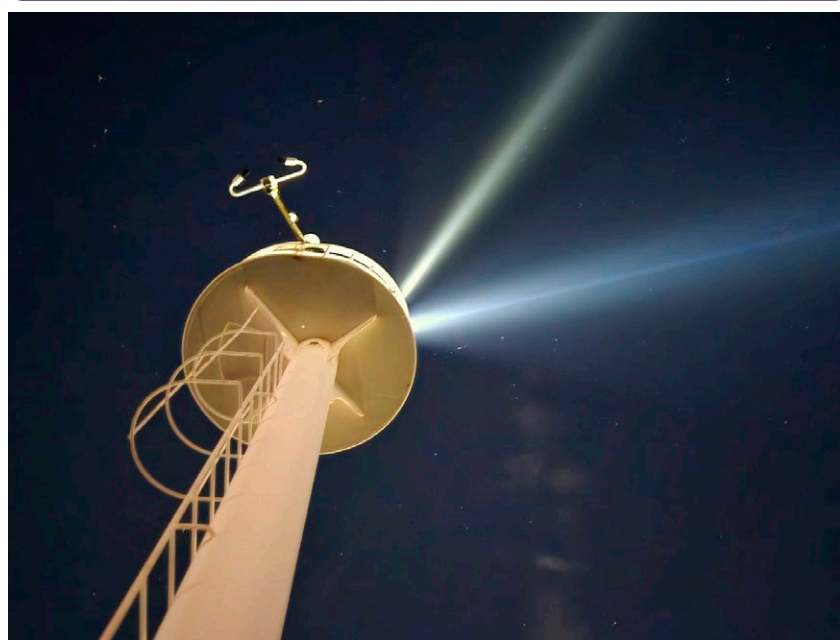
어느 누가 다가와도
허공을 향해 곧게 뻗은
그 뿌리 깊은 침묵은
표현할 수 없는 굳은 의지

암울한 검은 밤 습결 위에서
칼이 된 대나무의 절개
깃발 없는 분노의 외침이
단죄라는 이름으로 피어난다

폭압이 아닌 신념이 되고
분노 아닌 약속이 되는 날까지
죽창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폭염의 여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 장의 사진 _ 윤미순 건축사 作 / 미 건축사사무소



제주 조천읍 함덕리 정주향 등대

2025년 7월 30일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